



책 머리에

- 2006 년 합본호를 발간하며

코리아 협의회는 독일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한독간의 만남의 장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로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과 독일의 관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간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뿐아니라, 협의회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제로서 피할 수 없이 대면해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과 독일’을 기획 특집의 제목으로 삼았다. 이번 특집은, 각기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몰트만 교수와 김지하 시인이 나누는 한편의 대화로 시작된다. 이 대화는, 상이한 문화권 출신의 두 사상가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에 대한 경의를 품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화간 대화의 한 본모습을 이룬다. 둘째 글은, 작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한국의 문학과 근/현대성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이다. 요켄 힐트만은, ‘근/현대’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 ‘유럽적인 것’을 보편시하는 유럽중심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세번째로 최현덕은,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의 양상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찰하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어렵게, 내지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분석한다. 포토시리즈 ‘당산 나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순간적으로 발견된, 한국과 유럽의 유사성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작가 힐트만은 한국의 당산제와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을 보면서 외형에서 뿐 아니라 주제 속에 숨겨져 있는 유사성을 해석해 낸다.

이외에도 이번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로는 ‘디아스포라’가 있다. 또한 북한에 관한 글들도 모아져 있다. 두번째 포토 시리즈 ‘서울’과 더불어 이 모든 글들은 위의 기획 특집의 주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결국은, 지구화 과정의 전개와 더불어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는 문제, 즉 <우리는 ‘낯선 이들’과 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물음과의 씨름이다.

최 현덕